

## 인물 연구 방법의 모색\*

— 현진건의 『무영탑』을 예로—

최시한\*\*

1. 머리말
2. 기존 연구 비판
3. 기본 개념 설정
4. 성격소의 기능과 해석
5. 성격소의 종류와 인물형상화 방식
6. 『무영탑』 분석
  - 6-1. 관념적이고 유형적인 인물형상화
  - 6-2. 성격의 내면성과 사회성 빈약
7. 맺음말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소설의 인물을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그 원인을 밝힌 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인물, 성격, 특질, 성격소 등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여 구조 분석 중심의 방법론을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현진건의 장편 역사소설 『무영탑』을 인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효용성을 시험하였다.

인물은 특질들의 총체이다. 특질이란 인물이 지나는 갖가지 속성 혹은 자질로서, 인물 해석의 기본 단위이다. 특질을 제시하는 서술이나 그에 내포된 요소, 소재 등이 성격소이다. 특질들이 종합되어 ‘성작’을 이루는데, 그것은 내면적·사회적·기능적 측면에서 파악된다.

『무영탑』은 인물의 특질을 보여주는 여러 기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서술자의 태도가 주권적이고 선악이분법에 따른 관념을 노출하고 있어서 모순된 양상을 보인다. 때문에 인물의 특질이 평면적으로 고정되고 성격소들이 다양한 특질을 지니거나 형성하지 못한다. 이는 이 작품의 구조가 통일성을 얻지 못한 점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인물의 내면적

\* 이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8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특질 제시가 빈약하고 사회적 특질 또한 행동과 사건 전개에 충분히 동기화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애정적 갈등과 이념적 갈등이 괴리되는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한 기존의 긍정적 평가는, 이른바 ‘작자의 의도’만 중시하고 인물 형상화 측면을 소홀히 한 결과로 보인다. (주제어: 인물, 성격, 특질, 성격소, 인물형상화 방식, 내면적 성격, 사회적 성격, 기능적 성격, 내면성, 사회성)

## 1. 머리말

인물은 이야기(서사) 전반의 핵심 요소이다. 그래서 이야기는 대개 인물로 기억된다. 이점을 중요시하면, 골짜기의 물이 저수지에 모이듯, 작품의 구성요소들은 거의가 인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이야기를 인물이 아니라 사건 또는 행동 중심으로 본다 해도, 항상 그 주체는 인물이어서, 그들도 인물에 수렴될 때 통합된 의미를 지닌다. 역사 서술의 한 형식이 기전체(紀傳體) 즉 인물의 일대기 서술형식이고, 그것을 본뜬 한국 고소설의 제목이 대부분 주인공 이름에 ‘전’이 붙은 형태임은 우연이 아니다. 이야기라는 것이 인간에 관한 관심에서 지어지고 향수되는 만큼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근대소설의 경우, 단편소설보다 장편소설에서 인물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삶의 단면보다 그 총체성을, 사건 혹은 스토리보다 그 주체의 내면에 작용하는 갖가지 원인을 입체적으로 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인물을 적절히 파악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거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그래서 인물은 사건에 녹아버리기도 하고, 해석자의 잣대에 맞춘 기계적인 평가나 유형 분류의 대상이 돼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인물이 지닌 고민과 개성의 결은 무시된 채, 단지 어떤 전형이나 상징으로 환원되기도 한다. 소설을 이루는 중심되고 독자적인 요소에 적합한 방법론, 해석자의 직관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가령 인물의 성격과 의미 기

능을 분석할 기본 개념과 단위를 설정하고, 그들의 기능 양상을 적절히 포착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할 연구방법이 아쉬운 실정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제까지의 인물 연구가 지닌 문제점을 살핀 후, 인물 연구를 위한 기본 개념과 방법을 설정하여 기존의 이론을 대강이나마 새로 정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현진건의 장편 역사소설 『무영탑』을 분석함으로써 그 타당성과 가능성을 시험하고자 한다.

대상을 『무영탑』으로 잡은 까닭은 이렇다. 한국 근대소설 가운데 특히 역사소설은 계몽적 목적 아래 역사를 ‘해설’하는 경향이 짙다. 연의(演義)의 전통 속에 놓인 그것은, 그만큼 인물과 사건의 극화 곧 형상화 정도가 약해지기 쉬운 갈래이다. 『무영탑』은 근대 역사소설이 본격적으로 출현된 ‘역사소설의 시대’인 1930년대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이되, 그 중에서도 “춘원이나 동인의 역사소설의 세계를 뛰어넘어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연”<sup>1)</sup> 작품, “춘원과 같이 지배층이나 양반 귀족의 독선적·전제적 입장의 이상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 내부의 모순과 갈등의 힘을 발굴 제기하여 계층을 초월한 발전의 전망을 제시”<sup>2)</sup>한 작품 등으로 평가되었다. 달리 말하면, 이 작품은 당대의 일반 역사소설들과는 달리, 역사를 배경으로 허구적 이야기를 전개하는 ‘합성적 역사소설’ 혹은 ‘배경적 역사소설’<sup>3)</sup>로서, 인물과 사건의 형상화 수준이 높게 평가되어온 작품이다.

그런데 한편 이 작품은 멜로드라마의 특성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sup>4)</sup>

- 
- 1) 송백현,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 삼지원, 1985, 248쪽.
  - 2) 신동욱, 「현진건의 『무영탑』」, 김치수 외 12인 지음, 『식민지 시대의 문학 연구』, 깊은샘, 1980, 272쪽.
  - 3) 이재선, 「역사소설의 전개와 양상」 『현대소설의 서사시학』, 학연사, 2002, 230-231쪽.
  - 4) 강영주는 앞과 같은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작품을 “낭만주의적 역사소설의 한 전형”이라고 하였다. 『한국 역사소설의 재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90쪽. 한상무 역시 이 작품이 “상당한 통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

사실 이 작품의 주된 인물인 아사녀는 한국의 각종 이야기에 등장하는 전형적 인물형 가운데 하나인 ‘가련한 여인’<sup>5)</sup>에 해당되므로, 그만큼 통속성을 띠기 쉽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앞에 인용한 말을 다시 사용하자면 “사회 계층 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충실히 형상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조적 평가 간에는 미묘한 모순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단지 해석자의 관점의 차이에서만 비롯된 게 아닌 듯하다. 이는 한국 소설과 그 연구에서 흔히 보이는 불철저함, 즉 ‘작자의 의도’만 중시하고 작품의 실상 소홀히 하기, 혹은 이념적 당위만 앞세우고 예술적 형상성 눈감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시하는 인물연구 방법이 이런 문제를 설득력 있게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면 효용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아, 『무영탑』을 대상 작품으로 삼는다.

## 2. 기존 연구 비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소설 갈래가 지닌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서술 기법과 서술자의 증개 행위를 이용하여, 인간의 내면을 깊고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 또한 그만큼 중요성을 지닌다. 그런데도 한국 근대소설 연구에서 인물 해석의 방법론 정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인물 연구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근대소설과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2004, 289쪽.

5) 최시환, 「가련한 여인 이야기 연구 시론-『작녀성』 『순정해협』 『탁류』를 예로, 한국소설학회 편, 『현대소설 인물의 시학』, 태학사, 2000, 53-58쪽. ‘가련한 여인 이야기’란, 가련함의 특질을 지닌 여인이 수난을 겪는 ‘여인의 일생’ 이야기로, 한국의 각종 이야기 갈래에서 두루 발견된다.

첫째, 인물이 주로 공간적(수직적) 의미작용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인다. 사건이 시간적(수평적)으로 기능하여 이 행동과 저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윤곽이 드러난다면, 인물은 작품 도처에 갖가지 형태로 흩어져 있는 요소들로부터 특질을 인식하고 종합해야 그 정체가 드러난다. 또 특질들은 작품 내의 다른 요소들과 결합되고 갈등하면서 사건을 낚고 의미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 역시 독자가 종합적인 상상력과 사고력을 발휘하여 나름대로 ‘구성하고’ 해석을 해야 파악된다. 그러므로 인물 읽기는 사건 읽기에 비해 그 과정과 방법이 일정하지 않고, 독자의 교양과 정신능력, 읽는 태도 등에 따라 내용과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쉽다. 학문적으로 접근 할 경우, 특히 사회학, 정신분석학, 철학 등의 천착이 요구되기도 한다. 기존의 인물 연구는 이런 점들에 대해 소홀했던 것이다.

둘째, 인물의 형식적 국면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까닭으로 여겨진다. 허구세계를 형상화하는 소설에서 형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사건이 어떻게 서술되느냐를 다루는 플롯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하지만, 인물이 서술되는 형식 곧 인물형상화(characterization)는, 그게 용어로 굳어지지 않아서 뒤에 ‘방식’이라는 말을 덧붙여 써야 이해가 빠를 정도로 관심이 낮다. 관심이 있어도 그것을 주로 창작 기법 쪽에서만 바라보는 데 그침으로써,<sup>6)</sup> 작자가 인물을 형상화하고 그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다양한 기법을 읽기에 활용하지 않은 결과, 소설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인물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 길이 잘 모색되지 않은 것이다.

셋째, 용어의 혼란 때문인 듯하다. 흔히 인물에 해당되는 영어 character는 ‘(등장)인물’과 함께 ‘성격’으로 번역된다. 앞에 언급한 characterization을 인물형상화라고도 하고 성격(형상)화라고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6) 개론서들의 ‘인물형상화 방식’ 논의는, 유독 작자 중심, 창작 기법 중심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다.

character란 단어가 인물, 성격 외에도 기질, 개성, 특징 등의 뜻을 지니고 있기에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고, 근래에는 ‘캐릭터 산업’에 처처럼 인물의 생김새(와 이미지를 활용한 물품)까지 포괄할 수 있다. 하지만 용어는 되도록 통일하여 엄격히 써야 하기에, 특히 ‘성격’을 ‘인물’과 거의 같은 뜻으로 뒤섞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개성적 인물’과 ‘개성적 성격’이란 말을 비교해보면 드러나듯이, 한국어에서 ‘인물’이 하나의 존재나 주체라면 ‘성격’은 그가 지닌 특질들 혹은 기능들의 총합에 가깝기 때문이다.<sup>7)</sup> 이는 ‘성격비극’ ‘성격 배우’ 등에서 ‘성격’이 특질을 가리키지 그 소유자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넷째, 성격이란 말의 지시 대상의 혼란도 혼란이지만, 그 개념을 너무 내면적 혹은 개인적 특질 중심으로 살피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흔히 말하는 ‘성질’ 곧 심리적 기질이나 상태 위주로만 인물을 파악하여, 인물의 사회적 성격, 기능적 성격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히고 결국 작품의 의미를 축소시킨 것이다.

다섯째, 앞의 넷째와는 대조적으로, 인물을 너무 윤리주의적이거나 역사주의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경향 탓이다. 인물을 지나치게 심리 위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윤리적·역사적 관념의 맥락에서 그를 어떤 전형 혹은 상징으로 단순화시켜 ‘거창하게’ 판단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소설은 인간의 삶을 다루므로 많은 적든 윤리적 문제와 관련되게 마련이고, 그에 따른 어떤 사회적·역사적 효용을 지닌다. 그러나 근대소설에서 그 ‘윤리’와 ‘효용’은 정해진 도덕이나 당위를 확인하고 선전하기보다 그것을 반성하고 초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물을 특정 가치관이나 이념의

7) 박동규는 “‘인물’이라는 용어는 작중의 인간상을 지칭하는 의미가 강한 것이며 ‘성격’은 인물의 구조적 성향을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기능요인으로서의 용어로 더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대 한국소설의 성격 연구』, 문학세계사, 1981, 26쪽.

대변자처럼 간주함은, 무엇을 선전하거나 세뇌하는 소설의 인물에 대해 그러듯이, 그를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인물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소설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인간이라는 존재, 특히 그 내면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 3. 기본 개념 설정

이 글에서는 앞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 개념을 설정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인물’과 ‘성격’을 변별하고, 또 성격을 이루는 여러 하위 자질들을 ‘특질’이라 부르며, 그것들을 제시하거나 내포한 서술 및 요소에 ‘성격소(性格素)’라는 개념을 부여한다. 성격과 성격소의 구별은, 이야기론에서 스토리와 서술(담화)을 구분하는 데 따라, 서술된 것과 서술하는 것을 나눈 것이다.

인물은 행동의 주체요 역할을 맡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다.<sup>8)</sup> 그는 소설의 핵심적 요소로서, 동적인 ‘사건’에 비해 정적인 ‘사물’이다. 그는 주체를 구현하고 독자의 욕망을 대변한다. 인물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그가 지닌 욕망 및 동기(動機)와 그것이 환경이나 타자와 연관되고 갈등하는 과정, 말하자면 사건의 주체가 되는 양상에 따라 형성·변화된다.

8) 인간의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속성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인물이 독립적인 존재를 재현한 것이기보다 “재현의 매체들이 갖는 형식과 규약, 관습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담은 텍스트 속에서 “담화의 제반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로 여겨짐에 따라, ‘인물’보다 ‘주체’라는 말이 많이 쓰여 가고 있다(이 호, 「인물 및 인물형상화에 대한 이론적 개관」, 현대소설학회 편, 『현대소설 인물의 시학』, 태학사, 2000, 29쪽). 여기서 는 두 말을 모두 사용한다.

인물은 특질(特質)<sup>9)</sup>들의 총체이다. 특질이란 인물이 작품 구조에서 지니는 속성 혹은 자질로서, 인물 해석의 기본 단위이며, 다른 인물과 구별되는 것이 보다 의미를 지닌다. 그것이 모이고 종합되어 관심, 욕망, 윤리적 원칙 등의 복합체 즉 ‘성격’을 이룬다. 성격은 일차적으로 행동의 동기와 배경을 형성한다. 특질과 성격은 개성적일 수도 있고 전형적일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가 하면 집단적·원형적일 수 있고, 작품 특유의 것이거나 여러 작품에 관습적인 것일 수 있다. 뒤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또 한 인물은 내면과 심리, 사회, 작품 구조 등의 측면에서 여러 성격을 지닐 수 있다.

특질은 작품에서 서술자나 인물의 말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행동, 모습, 신분사항 따위를 가지고 독자가 추측하여 알도록 간접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또 유사한 것이 반복되어 계열(패러다임)을 이루기도 하고, 추리소설에서와 같이, 결정적인 것의 제시가 의도적으로 지체되기도 한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소설에서 특질을 제시하는 매개체 즉 관련 서술이나 그에 내포된 요소, 소재 등을 성격소라 부를 수 있다.<sup>10)</sup> 특질은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개 독자가 성격소로부터 ‘읽어 내는’ 것이다. 이 경우, 성격소는 독자가 어떤 맥락을 동원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할 기호나 상징에 해당되기에,<sup>11)</sup> 다른 말로 ‘특질 지표’<sup>12)</sup>라 할 수 있다.

- 
- 9) 이는 채트먼의 ‘특성(trait)’과 통한다. 그런데 채트먼은 여기서와 같이 성격, 성격소 등의 개념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9, 146-158쪽 참고
- 10) 최시현,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지성사, 2005, 177쪽 참조. 이것을 성격소가 아니라 특질소라고 부를 수도 있으나, 성격이 특질을 수렴하는 상위개념이므로 성격소라고 일컫는다.
- 11) 인물의 기호학적 연구는 성격소의 기호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소설보다 매체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연극, 영화 같은 갈래에서, 이 ‘성격소의 기호학’ 연구가 훨씬 보람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2) ‘특질 지표’는 다른 말로 ‘성격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일찍이 홍태식은 성격

특질은, 『무영탑』의 아사녀를 예로 들면, ‘순진하다’ ‘용모가 아름답다’ ‘그녀를 탐내는 이들에겐 위협을 받고 있다’ 등과 같이 ‘상태’를 가리키는 형용사적인 것도 있다. 그리고 ‘무남독녀이다’ ‘부여 사람이다’와 같이 ‘사실’을 가리키는 명사적(정보적)인 것도 있다. 둘이 엄격히 분리될 수 없고, 또 경우에 따라 사실이 어떤 심리적 상태, 예를 들면 무남독녀라는 사실이 ‘의지할 가족이 적다’ ‘귀여움만 받고 자라 세상 물정을 모른다’ 따위를 추리하게 하는 성격소가 되기도 하므로, 궁극적으로 특질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추상적 자질 즉 형용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의 ‘상태 특질’과 ‘사실 특질’ 구분은 특질이 작품에 크게 두 가지 양태로 서술되거나, 일차적으로 두 가지 양태로 해석되며, 그 가운데는 명사적인 것도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이론적 구분일 따름이다.

특질은 어떤 상황에서 인물이 잠깐 동안 품는 감정이나 욕망이 아니다. 예컨대 상대방 때문에 ‘기분이 상한’ 심정, 혹은 그런 심정을 품는 행동이 그 주체의 특질을 드러내는 성격소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특질로 보기는 어렵다. 작품에 흠어져 존재하고, 변할 수 있으며, 단 한 번만 서술될 수도 있으나, 논리적으로는 줄곧 지속됨과 아울러 둘 이상의 성격소에서 일관되게 파악됨을 전제하는 까닭이다.

한편 특질은 그 본질 혹은 내용에 따라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뉜다. 바꿔 말하면, 인물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해석된 세 종류의 특질들이 복합된 것이다. 그것은 내면적·개인적 특질, 외면적·사회적 특질, 그리고 작품 구조에서의 기능적 특질 등이다. 이에 따라 인물은 세 가지 얼굴을 지닌 존재, 곧 심리와 욕망의 소유자요, 이념<sup>13)</sup>과 가치의 모색자

---

지표라는 말을 “인물에 대한 정보”, “근본적인 동기” 등으로 사용하면서 인물 분석에 사용한 바 있는데, 이 글에서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홍태식, 『한국 근대단편소설의 인물 연구』, 한샘, 1998, 19 및 30-31쪽.

13) 여기서 ‘이념(이데올로기)’이란 정치적 이념만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의 이해관계와 삶의 조건에 바탕을 둔 사상과 신념, 혹은 사회적 존재를 형성하는

이며, 기능과 역할의 행위자라 할 수 있다.<sup>14)</sup> 이들은 각각 내면, 사회, 작품 구조의 측면에서 파악한 인물의 성격인데, 인물은 이들의 복합체이지만, 그 가운데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한 인물, 나아가 인물이라는 존재 일반에 대한 판단이 좌우된다.<sup>15)</sup>

#### 4. 성격소의 기능과 해석

성격소에 내포된 특질은, 곧 그것의 의미이다. 일상생활에서 누가 한 하나의 행동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듯이, 작품 서술의 어느 위치, 사건의 어떤 상황에 제시된 하나의 성격소는, 한 가지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여러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의 성격소는 둘 이상의 측면이나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가령 신라의 귀족인 주만이, 신라인 아닌 부여인이고 석수장이에 불과한 평민<sup>16)</sup> 아사달을 사랑하는 행동은, 개인적 심리의 맥락에서 자아가 강하고 열정적·낭만적임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작품 내의 현실과 작품 발표 시대의 사회현실 맥락에서, 신분 제도를 타파하고 개인 혹은 여성의 존엄과 해방을 추구하는 비판적 경향을 지녔음을 뜻한다고 읽을 수 있다. 한편 그 행동

---

집단적 관념과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서 가치관, 사상 등과 가깝다. 그래서 심리적 성격이 내면적·개인적인 특질로 이루어진다면, 이념적 성격은 외면적·사회적 특질로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념은 역사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완벽하고 자연스런 것처럼 의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14) 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25-37쪽 참고

15) 이러한 특질이나 성격의 종류를 가지고 어떤 작품이라든가 갈래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다. 이른바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은 인물의 사회적 성격을 중요시한다. 또한 오락 위주 이야기의 인물들은 흔히 기능적 성격이 유형화되어 있고, 사회적 성격은 약하거나 부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유독 내면적 특질이 비루한 경향이 있다.

16) 아사달은 천민일 수도 있다. 이점이 작품에서 불분명하다.

은 그녀가, 함께 아사달을 사랑하여 삼각관계를 이루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아사녀와 대립된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사녀를 부정적으로 보는 독자들한테는, 아사녀보다 그녀를 주인공으로 간주하게 하는 기능적 특질을 내포하게 된다.

이는 앞 장에서 다룬, 성격소에 내포된 특질에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느냐와는 다른 문제, 즉 하나의 성격소가 어떻게 기능하여 여러 특질을 지니게 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인물은 시간적·수평적보다 공간적·수직적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나의 성격소가, 또 성격소와 다른 요소들이 선적(線的)이기보다 면적(面的)으로, 한 방향보다 여러 방향으로, 또 한 층(層)보다 여러 층에서 의미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달리 비유하면, 특질이 작품에 차례로 줄을 서 있거나 모여 있기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성격소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양상, 그리하여 해당 서술이 지시적 의미에 더하여 다른 의미를 함축하게 되는 양상이 바로 성격소가 하는 문학적 기능의 실체이다. 물론 소설의 모든 요소가 그런 기능을 하지만, 성격소가 특히 더 그렇다는 말이다.

작자는 갖가지 요소들을 다양한 기법으로 동원하여 인물을 형상화한다. 인물형상화의 질료가 바로 성격소이다. 소설의 특성상, 성격소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서술자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서술하느냐에 좌우되는 동시에, 그 주체인 인물의 개인적인 심리와 동기의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인물이 처한 상황의 변화 즉 사건 속에서 특정한 의미 기능을 한다. 인물의 기본적 특질과 상황이 소개되는 도입부를 지나, 점차 사건이 전개되고 인물 간의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특질은 쌓이고 변하며, 사회적·이념적 맥락, 또 작품 전체 구조 맥락에서의 의미를 띠게 된다. 바꿔 말하면, 인물은 개인적 존재이다가 점차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 환경과 문화 속에서 개성 및 역할을 지닌 존재로 파악된다. 그 과정에서 특질 가운데 중심적인 사건 혹은 갈등과 밀접한 것은 남고 부수적인 것은 수렴되거

나 제외되며, 어떤 것은 의미가 바뀌게 된다. 물론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단순형 인물과 갈등형 인물<sup>17)</sup> 등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선택과 집중, 변화와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격소에 함축된 특질들을 해석하고 선택하며, 또 다른 의미 요소들과 결합하는 능력이 곧 인물 읽기에 필요한 핵심적 문학능력 이요 독해력이다. 특질의 파악과 종합을 얼마나 다양하고 적절하게 하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짐은 물론 해석 자체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 5. 성격소의 종류와 인물형상화 방식

성격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작품마다 특유의 질료와 방법으로 인물을 조형하며, 또 독자가 맥락을 설정하고 동원하기에 따라 어느 것이 성격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작품에서 어떤 요소나 서술을 성격소로 간주하는 행위 자체가 해석의 일부요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있어왔고, 이론적으로도 있게 마련인 인물형상화의 방식, 작자가 인물 서술에 흔히 사용하는 성격소와 그 기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서술을 분석하면, 좀 더 쉽고 적절하게 인물의 성격을 재구성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터이다.

성격소는 대강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이름, 행동, 신분사항, 특질을 제시하는 공간소<sup>18)</sup> 등이다.

17) 송하춘이 『1920년대 단편소설연구』(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5)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18) 공간소(空間素)는 성격소처럼 필자가 만들어본 용어이다. 시간과 함께 소설의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간’을 가리키는데, 그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기에 공간적인 것을 제시하는 요소 혹은 서술을 구체적으로 가리키기 위해 ‘소’를

‘행동’은 인물을 주체로 한 움직임 혹은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다. 그것은 외면적 행동과 내면적 행동 - 자신과 타자에 대한 심리, 반응, 태도 등 - 을 모두 포함한다. 행동 가운데 인물의 특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습관과 말하는 행위 곧 ‘발화(發話) 행위’인데, 후자에는 대화, 내적 독백 등은 물론 서술자와 초점자가 ‘서술하고 보는 행위’ 자체도 해당된다.

‘신분 사항’은 인물의 소속과 계층에 관한 사실을 제시하는 성격소외한 종류를 싸잡아 가리키기 위해 설정한 용어이다. 그것은 나이, 집안, 학력, 출생지, 친분관계 등으로부터 직업, 지위, 계층, 인종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들은 주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그런 사람(의 행동과 내면)은 대개 그렇다’는 관습적 이미지, 전형적 관념 등의 맥락에서 특질이 파악된다. 그래서 특히 인물의 사회적 성격을 해석하는 데 필요하다. 사회적 존재인 독자가, 역시 사회적 존재인 인물을 어떤 환경과 시대 속에 위치시키고 파악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성격소가 신분 사항인 셈이다.<sup>19)</sup>

‘(스토리)공간’이란 일차적으로 인물과 사건이 존재하고 벌어지는 장소(이른바 지리적 배경)와 함께 그 장소를 구성하는 물체들을 가리킨다. 그것의 주된 기능은 인물과 사건을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며,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의미, 주제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인물의 특질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는 점이다. 공간소 자체가, 앞에서 살핀 행동이나 신분사항에 비해 뚜렷한 ‘형상’을 지닌 것이므로, 이것이야말로 ‘인물형상화’에 가장 부합하는 성격소라 할 수 있다.

---

붙여본 것이다. 소설의 공간은 스토리공간과 서술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스토리공간을 가리킨다. 최시한, 「근대소설의 형성과 ‘공간’」,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9쪽 참조

19) 인물형상화는 물론 작품 전체의 ‘사실 효과’를 복돋우기 위해 작자는 이 신분사항을 적극 활용한다. 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책세상, 2000, 29-30쪽 참조

인물형상화에 흔히 사용되는 공간소는 인물의 생김새, 차림새, 사는 집과 방, 거리, 풍경, 거기서 일어나는 비나 눈 같은 기후 현상 따위이다. 그것은 그 모습, 이미지, 분위기, 상징성 등이 인물의 심리, 욕망, 상황 등과 유사(은유), 인접(환유), 대조 관계에 놓이는 방식으로, 주로 간접적으로 특질을 표현한다. 공간소의 이미지라든가 상징성은, 문학적 관습에 따라, 또 시대와 문화 환경에 따라 정해지고 변한다. 이는 그것이 주로 문학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지님을 뜻한다.

여기서 앞의 성격소들을 성격소로 만드는, 인물 형상화의 일반적 서술 기법에 대해 간략히 살필 필요가 있다. 앞에서, 특질은 사실특질과 상태 특질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성격소나 그로부터 해석한 특질의 진술형태가 사실진술일 수도 있고 상태진술일 수도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실(특질을 표현하는) 성격소는, 그것도 결국은 형용사적인 상태특질의 제시를 위한 것이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상상과 추리를 활발히 벌여야 한다.

한편, 대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본 담화양식에 들려주기(telling)<sup>20</sup>와 보여주기(showing)가 있다. 이 개념은 인물형상화 방식을 구별하는 데도 매우 쓸모가 있다. 소설에서 성격소가 될 것을 ‘말(서술)하는’ 이는 서술자와 인물인데, 그들 역시 특질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제한적 서술보다 주권적 서술이, 인물-초점자 서술보다 서술자-초점자 서술이, 그리고 상태 성격소가 사실 성격소보다 더 직접적이며 들려주기에 가까워 보이지만, 양상이 단순하지 않다. 작자적 서술상황에서 서술자의 주권적인 서술(이른바 삼인칭 전지적 서술)은 대개 인물의 특질을 직접적으로 ‘들려준다’. 그런데 일인칭서술이든 삼인칭서술이든, 서술자가 아니라 작중인물에 의한 특질의 직접적

20) telling을 '들려주기'로 번역하는 데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최시환, 『근대소설의 형성과 '공간'』,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13쪽.

제시는, 인물이 하는 ‘행동’이므로, 같은 직접적 제시라도 차이가 있다.

## 6. 『무영탑』 분석

### 6-1. 관념적이고 유형적인 인물형상화

『무영탑』의 인물형상화 방식은 모순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장면적인 보여주기 위주의 서술기법과 서술자의 주권적·관념적 서술태도가 공존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른바 삼인칭의 작자적 서술상황을 취하고 있는데, 서술자의 기능이 강한 편이다. 이념적 갈등 관계에 있는 이손(伊殮) 유종(唯宗)과 시중(時中) 금지(金旨)의 특질을 제시하는 서술을 보자.

(가) 둘이 한 나이나 젊었을 적에는 다 같이 화랑으로 돌아다니며 같은 풍월당에서 노래도 읊조리고 활쏘기도 겨루며 술을 나누기도 하였고 그 후 한 조정에서 피차에 귀밀털이 희어졌으니 바이 안 친한 티수도 아니지만 속으로는 맞지 않는 두 사이였다.

금지는 철저한 당학파(唐學派)요, 유종은 어디까지나 국선도(國仙道)를 숭상하는 터이니 주의부터 서로 달랐다.

금 시중은 얼굴빛이 노리캐깡한 데다가 수염도 없어 얼른 보면 고자로 속게 되었는데, 이찬 유종은 긴 수염이 은사실처럼 늘어지고 너그러운 두 뺨에 혈색도 좋으니 풍신조차 정반대였다. 더구나 하나는 간간하고 앙큼스럽고, 하나는 팔팔하고 호방하여 두 성격이 아주 틀렸다. (131쪽)<sup>21)</sup>

21) 『현진건문학전집 3』, 국학자료원, 2004. 이것을 대상으로 삼고 앞으로는 쪽수만 표시한다. 단, 인용에도 나오는 금(金)씨 성을 가진 인물들을 이 전집에서는 모두 ‘김’으로 적었는데, 오류라고 보아 따르지 않는다.

서술자가 주관적 태도를 지니고 있고 가치 판단이 분명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작품의 서술자의 개입 정도는, 당대 이광수, 김동인 등의 역사소설보다 비교적 낮은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묘사, 장면화, 인물 초점화, 공간소 등을 활용하여 특질을 극화(劇化)하여 보여 주는 간접적 서술 방식이 많이 사용됨으로써 서술자의 직접적 서술이 줄어들고 기능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진건의 일찍이 단편소설에서 거둔 문학적 성과인데,<sup>22)</sup> 그 결과 작품의 서술은 위와 같은 서술자의 목소리로 된 서술보다 대화와 묘사가 많고, 인물을 초점자로 한 관찰, 회상 등이 빈번하다. 아사녀의 특질을 제시하는 다음 서술은 남편 아사달을 초점자로 하고, 목소리로까지 주로 그의 것을 사용한 것이다.

(나) 만일 장인이 돌아가셨다면! 아사녀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이다.

자기도 혈혈단신이요, 처갓집도 어느 일가 친척 하나 들여다볼 사람이 없는 홀진 집안이다. 홀로 남은 아사녀는 어찌 되었을까. 어리고 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런 큰일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 큰일을 감당하고 못하는 것은 오히려 둘째 셋째 문제다. 남 유달리 눈 여린 그가 이 지극한 슬픔에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이 울고 또 울다가 그대로 자지러지거나 않았을까.

머리는 풀어 산발을 하고 울어서 통통 부은 눈을 그대로 감아버린 아사녀의 모양이 일찍 눈앞에 나타났다. (48쪽)

한 걸음 나아가, 부수 인물의 발화 행동 혹은 대화 장면을 통해 주요 인물의 특질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주만의 몸종인 털이가 그렇게 활용되는 대표적 존재이다. 장면으로는 불국사 승려들이 아사달을 헐뜯는 이 소설의 도입부가 대표적이다. 그들의 대화 행동을 통해 아사달이 어떤 인물이며 무슨 일을 해왔고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한마디로 그의

22) 최시한, 「현진건의 현실의식과 기법 - 「타락자」 론」, 『현대소설의 이야기학』, 역락, 2008, 109쪽.

특질과 환경이 보여지고 예시된다. 공간소에 의한 특질의 간접 제시에는, 인용 (가)에서와 같이, 인물의 생김새가 빈번히 활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물은 독자적 개성과 풍부하고 다양한 특질을 지니지 못한다. 그것은 서술자가 선악 이분법에 따른 관념적 또는 이념적 태도를 강하게 노출하여, 성격소들이 다양하고 사실적인 의미를 지니거나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작품의 의미구조가 선악 이분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격소들이 보여주기 양태를 띠고 있어도, 독자적이고 함축적인 특질을 지니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는 생김새 서술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선인(善人), 즉 주제적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서술되는 아사녀, 아사달, 주만, 주만의 아버지 유종, 유종이 사윗감으로 정한 경신 등은 모두 잘 생겼으며, 아사녀를 속여서 차지하려는 뺑개, 유종과 대립하는 금지, 금지의 아들 금성 등과 같은 악인은 모두 못생겼다. 이는 생김새라는 공간소가 개성의 제시보다는, (가)에서 볼 수 있듯이, 관념의 제시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 작품에서 인물들의 특질은 개성적이기보다 유형적이며, 심리적인 것보다 이념적, 윤리적인 것 위주이고, 그것들 중심으로 미리 고정되어 있다. 선인의 자식은 선인이고 악인의 자식은 거의가 악인인, 고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격의 ‘혈연 동일성’ 또는 ‘가족(가문) 동일성’이 이 작품에서도 답습되고 있다. 이는 이 작품의 멜로드라마적 특성을 강화하는, 신문 연재소설다운 특징이다.

인물의 특질이 이념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그 성격이 내면성이 약해지고 평면적이 되어 사건과 상황 속에서 형성 발전되는 면이 적어진다. 특질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각종 기법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사건 전개와 내포된 의미가 단조로운 것은, 이러한 성격의 이념적 단순성과 불변성<sup>23)</sup> 때문으로 여겨진다. 서술자의 태도가 관념 우선적이며, 선악 이분법에 따르고 있고, 그 선악 판별의 기준 즉 주제

적 가치가 참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찌감치 폭로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다.

당위가 현실을 지배하는 이런 상황은, 소설이 오락물에 불과한 게 아니라 명분을 세우기 좋고, 권선징악적 궤도에 따라 전개되므로 쉽게 읽히지만, 독자를 긴장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거듭 동원되는 것이, 지성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이 역시 고소설과 신소설의 ‘가련한 여인 이야기’에서 항상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의 겁탈 혹은 정절 훼손 위기 사건(여성 수난 사건)이다. 아사녀에게 세상은 “젊고 예쁜 여자의 살점을 노리는 아귀떼가 어디든지 우글우글 끓는”(299쪽) 곳이다. 그녀의 가련함을 강화하고 그녀가 계속 위기에 처하는 것을 그럴듯하게 하는 특질로는, (나)에서 보듯이, 외동딸이고 남편이 멀리 있으며,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는 외면적인 것과, “남달리 눈 여린” 사람이라는 내면적인 것이 있다. 심리적으로 볼 때, 그녀는 마음이 여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며”(182쪽), 남의 말만 믿고 아사달을 의심하여 죽을 결심까지 할 정도로 단순하고 경솔하다.

이렇게 볼 때 아사녀는 1930년대 현실에서 부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육체적 순결을 유지함으로써 정절이라는 덕목을 지켜내지만, 운명과 환경의 횡포에 수난 당하기만 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만다. 서술자 스스로 “명충이 같다”(351쪽)고 할 정도이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긍정적 인물 즉 순결하고 가련한 여인으로 남는다. 이러한 모순은, 아사녀가 이 작품의 모티프가 된 석가탑 건조 설화의 주인공이요, 독자의 긴장과 흥미를 유지시키는 인물인 까닭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의 인물형상화가 ‘가련

---

23) 정호웅은 한국 근대역사소설의 특성을 인물의 성격 중심으로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성격의 강렬성과 불변성, 무시간성, 윤리적 이분법, 박물지적 장식성 등이다. 이런 특성을 『무영탑』 역시 대체로 지니고 있다. 정호웅, 『한국의 역사소설』, 역락, 2006, 14-34쪽.

한 여인 이야기' 전통에 따른 관습성을 지니고 있는 데 기인한다.

앞서 잠시 살폈듯이,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만은 아사녀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고 관습 타파적이므로, 1930년대 현실에서 다소 근대성을 띠고 있다. 또한 그녀의 특질은 행동으로 보여지고 상황에 따라 발전되는 면이 있어서, 중심된 사건을 야기하고 진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은 아사녀가 아니라 주만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녀 역시 비극적 결말에 이르므로 가련한 여인 —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 낭만적 열정에 의해 가련해진 — 인데, 분명 새로운 면을 지닌 가련한 여인이긴 하나, 그녀의 과격적인 행동이 작품 구조와 당대 현실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지는 의문이다.

어떻든 관습에 따라 대부분의 독자가 여주인공으로 여기게 되어 있는 아사녀는 긍정적 성격을 지닌 것처럼 서술되나 부정적인 면이 있고, 삼각 관계를 만들어 아사녀와 애정적 대립관계에 놓이게 된 주만은 도리어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두 여성 인물의 특질에 일관성이 훼손되고 기능적 성격도 혼란스러운 것은, 이 작품이 인물과 사건 설정 사이, 혹은 가련한 여인 중심의 고소설이나 멜로드라마 양식과 근대소설 양식 사이에서 착종에 빠진 결과로 보인다. 가련한 여인 이야기의 인물 유형과 그 형상화 방식을 너무 답습하였기에, 주만의 다소 근대적인 성격이 서사구조에 합리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것이다.

## 6-2. 성격의 내면성과 사회성 빈약

『무영탑』은 중심사건을 잡기 어렵다. 장편소설임을 감안하더라도, 핵심적인 갈등과 그것이 낳는 스토리의 중심 줄기가 모호하다. 서술의 초점이 애매하여 중심 제재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할 수도 있다.

스토리의 표면적 전개를 보면, 이 소설은 아사달이 탑을 완성하는 사건 이라기보다, 완성한 후에 이미 죽은 아사녀와 죽었으리라 여기는 주만의

환상을 보며 돌부처를 완성하고, 아사녀의 뒤를 따라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이다. 이 점을 볼 때, 이 소설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요, 그것을 가로막는 현실과의 갈등 중심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에는, 인용 (가)에 뚜렷이 드러나 있듯이, 전통주의자 유종과 당나라 문화에 젖은 사대주의자 금지가 이념적으로 대립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갈등에서 긍정되는(선한) 쪽의 이상적 인물이 금량상(金良相)의 아우 경신(敬信)이다. 이를 자체가 강렬한 성격소인 경신은, 같은 귀족 계층인 금지의 아들 금성(金城)과 대립한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갈등, 곧 애정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은 합리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중심사건이 모호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선 연구들이 작품의 통일성을 전제한 채 여러 각도에서 이 작품의 갈등 혹은 제재를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깨져 있다고 보고, 그 실상과 원인을 인물 중심으로 살펴겠다.

먼저 인물들의 관계를 신분사항 중심으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선		악
귀족	유종	(금량상)	금지
	주만	금경신	금성
평민	아사녀	아사달	팽개, 콩콩이

양쪽의 이념적·사회적 갈등은, 거의 전적으로 귀족층에서만, 그리고 주만을 사이에 둔 젊은이 간의 갈등 즉 경신과 금성의 대결로 전개된다. 그것은 크게 주만과 금성의 혼사 결렬 사건, 경신이 금성 일행을 망신 주는 사건, 위기에 빠진 주만을 경신이 구출하는 사건 세 가지이다. 그런데 그 사건에 참여한 각 인물의 행동들은 과연 앞의 이념적 특질을 표현하는가? 그러는 성격소로서 적절하고 충분한가?

서술 자체를 볼 때, 금성은 무리한이고 실수를 거듭하므로 일반 상식을 기준으로 그냥 못하고 ‘악할’ 뿐이다. 그의 사대주의적 특질을 보여주는 행위는 당나라 술을 즐겨 마시는 정도이다. 그 아버지 금지 역시, 조정에서 유종과 다소 논쟁을 벌이기는 하나, 이념적 특질을 제시하는 행동이나 묘사가 의외로 적다. 이런 점은, 정도는 다르나 ‘선한’ 쪽도 비슷하다. 유종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여 금지의 청혼을 거절하고 경신을 사윗감으로 정하는 행동은 비교적 이념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의 세 사건 중 혼사 결렬 사건은 사회적 갈등을 제시하는 성격소로서 기능한다. 하지만 그 밖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찾기 어렵고, 대립하는 상대 쪽의 이념적 성격이 약하므로, 함께 사회적 성격이 약화된다. 경신이 국선도로 맺어진 어떤 결사(結社)의 중심인물로서 영웅적이고 이념적인 면모를 다소 보여 주나, 의미 있는 사건의 주체로 발전하지 못한다.<sup>24)</sup> 따라서 나머지 두 사건, 곧 경신이 금성을 망신 주는 사건, 경신이 주만을 구출하는 사건 등은 사회적 의미가 빈약한 채 그저 흥미를 끄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이 작품의 이념적 대립은 한국 역사를 국공파와 유학(한학), 자주 독립파 사대, 진취와 보수 간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본 신채호의 역사 사상을 수용한 것<sup>25)</sup>으로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이 소설에는 ‘비아(非我)’(여기서는 ‘악한’ 것, 부정적인 것) 측의 구체적 내면과 사회적 행위 제시가 빈약하다. ‘아(我)’ 측 역시, 말하자면 ‘국공’ ‘자주 독립’ ‘진취’ 등과 통하는 특질이 인물의 신념이나 행동의 내적 동기를 이루고 있지 않다. 주만, 아사달, 경신 등의 내면적·외면적 행위에 적절히 동기화되며 충분히 형상화되지 않고 있다. 주만은 사랑에만 빠져 있고 ‘민족 예술’의 걸작을 완성하는 아사달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24) 이는 일체의 감시 탓이 크다. 후에 현진건은 다른 역사소설 『흑치상지』에서 이와 통하는 사건을 펼치는데, 결국 중단되고 만다.

25) 한상무, 『한국 근대소설과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2004, 283쪽.

사회적 의식이 빈약하다. 따라서 ‘선택’이라든가 어떤 민족주의적 가치는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성되는 것, ‘작품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라기보다, 상식적·관념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에 가깝다. 인물의 특질을 형상화하려는 여러 기법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술자의 태도가 주관적이고, 필요한 성격소들이 내포된 세부 사건 또는 행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결과, 그 주제적 의미가 인물들의 욕망, 행위, 감정 등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 작품 고유의 의미 맥락을 형성하는 데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인물 성격의 내면성과 사회성이 빈약하여, ‘작자의 의도’는 선험적·당위적인 것에 머문 셈이다.

한편 주만—금경신—금성의 삼각관계는, 금성의 애정이 짝사랑이고 금경신이 주만의 신앙감이 된 것도 아버지 유종의 독단이므로 애정 갈등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앞에서 살핀 정도의 이념적 성격을 지녔을 뿐이고, 같은 귀족 간에 일어난 일이므로 계층적 의미도 제한되어 있다. 이에 비해 아사녀—주만—아사달의 삼각관계는 주만이 귀족이고 여성이므로 사회적 의미가 있다. 그녀가 아사달을 사랑하는 행동과 그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은 계층의식 타파와 여성의 자아 실현이라는 근대적 특질을 형상화한다. 그러나 세 인물의 사회적 성격이 약하고 사랑을 좌절시키는 대립향이 모호하거나 달라서 그 의미 역시 제한된다.

먼저 아사달을 사랑하는 주만은 내적 동기가 맹목적이고 낭만적이다. 그녀는 귀족답게 행동하지도 않지만, 아사달이 처한 내면적·외면적 상황에 대한 고려도 거의 하지 않는다. 그에게 이미 아내가 있다는 사실마저 문제 삼지 않는데, 이에 이르면 현실 초월적이라든가 낭만적이라기보다 비현실적이다. 한마디로 그녀의 성격은 합리성과 사회성이 적다. 따라서 그녀가 아사달을 사랑하는 행위는 낭만적이기는 하나 계급 타파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고, 사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그녀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 곧 갈등의 대립항도 현실성이 약화되고 운명적인 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 타락한 현실, 운명 등과 같은 비역사적인 게 되는 것이다.

주만과 대립 관계에 있는 아사녀는, 앞서 살폈듯이, 주만처럼 사회적 성격이 약하고 심리 또한 소극적인 ‘가련한 여인’이다. 이 작품의 절정부에 놓인 그녀의 죽음은, 같은 평민 계층인 팽개, 콩콩이, 불국사의 문지기 등에 의해 촉발되고 우연이 겹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적 주제 형성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지 않다.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가령 사대주의자들이 조성한 현실의 부정적 요인 같은 게 개입되지 않아서, 의미 있는 주제 형성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다.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끊임없이 정절 훼손의 위기를 조성하여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팽개, 콩콩이 등이 성적으로 타락한 현실의 모습을 일정하게 제시한다. 아사녀는 그 현실에서 수난을 당하다가 죽는, 그 타락한 현실의 희생자이다.

아사달의 내면적 성격도 소극적이고 사회적 성격 역시 빈약하다. 그는 평민이며 서울(경주)에 불려와 답 짓는 일을 끝낼 때까지 매인 처지인데, 그러한 현실에 대한 자의식이 거의 없다. 그는 아사녀가 그리워도 불국사를 떠나려(탈출하려) 하지 않고 맡은 일에 성실하며, “신흥(神興)”<sup>(93쪽)</sup>을 기다려 예술가로서 작업을 할 뿐이다. 주만의 저돌적인 구애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현실의 궁핍함과 운명의 가혹함을 제시할 뿐 귀족과 평민 사이의 계층 갈등이나 국선도파와 당학파의 이념 갈등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인물들의 성격이 내면성과 사회성이 약하므로, 바꿔 말해 이념적 특질을 제시하고 형성하는 인물 내외의 성격소가 적으므로, 이 작품에서 국선도파의 당학파의 갈등은 인물과 사건으로 충분히 형상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작가의 의도’로 인정되고, 일제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려 광분하는 당대 현실에서 그만큼이나 마 민족 자주의식을 빚대어 그려낸 의의가 적지 않지만, 소설에 육화(肉化)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애정적 갈등은 외피일 뿐이고 이념적 갈등이 속살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 반대, 곧 애정적 갈등을 전개하는 데 이념적 갈등이, 충분히 통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활용된 정도로 볼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애정적 갈등 중심이고 멜로드라마의 구조를 지닌 ‘가련한 여인 이야기’이되, 가련한 여인이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두 명이며, 이념적 갈등이 개입되어 사회의식 혹은 역사의식이 일정하게 투영된 작품인 셈이다.

## 7. 맺음말

이 연구는 인물을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그 원인을 밝힌 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인물, 성격, 특질, 성격소 등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여 구조 분석 중심의 방법론을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현진건의 장편 역사소설 『무영탑』을 인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타당성을 시험하였다.

인물은 특질들의 총체이다. 특질이란 인물이 지니는 갖가지 속성 혹은 자질로서, 인물 해석의 기본 단위이다. 특질을 제시하는 매개체 즉 관련 서술이나 그에 내포된 요소, 소재 등이 성격소이다. 특질들이 모이고 종합되어 관심, 욕망, 윤리적 원칙 등의 복합체인 ‘성격’을 이루는데, 그것은 크게 내면적·사회적·기능적 측면에서 파악된다.

좋은 소설은 구성요소들이 적절히 동기화되어 있다. 인물 중심으로 보면, 인물의 특질을 제시하는 성격소들이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시되며 서로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인물을 파악하는 일은 성격소를 설정 혹은 분리하고, 그것이 지닌 특질 즉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이다. 능력 있는 독자는 특질과 성격을 파악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핵심적인 의미 맥락을 작품 내외에서 발견하고, 형성하며, 대입한다.

『무영탑』은 인물의 특질을 극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여러 기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서술자의 태도가 주관적이고 선악이분법에 따른 관념을 노출하고 있어서 모순된 양상을 보인다. 인물형상화가 이러한 이념성과 함께 ‘가련한 여인 이야기’의 유형성을 답습하고 있어서, 인물의 특질이 평면적으로 고정되고 성격소들이 다양한 특질을 지니거나 형성하지 못한다. 이는 이 작품의 구조가 통일성을 얻지 못한 점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인물의 내면성이 빈약하고 사회적 특질 또한 행동과 사건 전개에 충분히 동기화되어 있지 않아서, 애정적 갈등과 이념적 갈등이 괴리되며 사건 전개도 필연성과 함축성이 약화되는 것이다.

소설을 비롯한 이야기 일반의 연구에서 한국의 비평계와 문학교육계는 ‘작자의 의도’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무영탑』의 경우, 성격소들을 검토해 보면 전통적 혹은 민족주의적 이념과 사대적인 이념을 대립시키고 전자를 긍정하려는 작자의 기획은, 인물과 사건으로, 나아가 통일된 구조를 지닌 작품으로 적절히 형상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련한 여인 이야기’의 전통을 답습한 구조에 일제강점기의 비판적 현실인식이 다소 첨가된 정도에 그친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이강언 외 3인 편, 『현진건문학전집 3』, 국학자료원, 2004.

### 2. 논문과 단행본

강영주, 『한국 『한국』 한의 재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책세상, 2000.

김정하, 「1920년대 소설의 작중인물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박동규, 『현대 한국소설의 성격 연구』, 문학세계사, 1981.

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송백현,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 삼지원, 1985.

송하춘, 『1920년대 단편소설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5.

신동욱, 「현진건의 『무영탑』」, 김치수 외 12인 지음, 『식민지 시대의 문학 연구』, 깊은샘, 1980. 253-273쪽.

이재선, 「역사소설의 전개와 양상」 『현대소설의 서사시학』, 학연사, 2002, 224-256쪽.

이정옥, 『1930년대 한국 대중소설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0.

이 호, 「인물 및 인물형상화에 대한 이론적 개관」, 현대소설학회 편, 『현대소설 인물의 시학』, 태학사, 2000, 7-30쪽.

정호웅, 『한국의 역사소설』, 역락, 2006.

최시한, 「가련한 여인 이야기 연구 시론 - 『직녀성』 『순정해협』 『타류』를 예로」, 한국소설학회 편, 『현대소설 인물의 시학』, 태학사, 2000. 49-70쪽.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지성사, 2005.

최시한, 「현진건의 현실의식과 기법- 「타락자」론」, 『현대소설의 이야기학』, 역락, 2008. 99-112쪽.

한상무, 『한국 근대소설과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2004.

현길언, 『문학과 사랑과 이데올로기 - 현진건 연구』, 태학사, 2000.

홍태식, 『한국 근대단편소설의 인물 연구』, 한샘, 1998.

Chatman, S.,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9.

Toolan, Michael J., 김병욱·오연희 공역, 『서사론』, 형설출판사, 1995.

## Abstract

### A Study of the Methodology of Character

- with the case of the novel *Mooyoungtop* by Hyun, Jin-geun -

Choe, Si-han

This study is to make an alternative for a rational methodology of character clarifying the reason that there is no such one. To do so, I developed a methodology by newly establishing the concepts of character, characteristic, trait, or characteristic element and tested its validity by analyzing the novel *Mooyoungtop*(無影塔) by Hyun, Jin-geun.

Character is the traits as whole. Trait, the property or nature of character in the structure of work, is the very basic unit of character analysis. The medium providing traits, namely relevant narration, factor or material involved in it is characteristic element. When traits come together and are synthesized, they constitute characteristic, a complex of interest, desire or morals, and this characteristic is understood mainly in internal, social, and functional aspects.

*Mooyoungtop* uses many techniques which show a character's traits through scenes, however also takes on a contradictory aspect by the fact that the narrator exhibits the sovereign attitude based on a good-or-evil dichotomy. Therefore the traits of a character are superficial and fixed, and characteristic elements fail to possess or form a variety of traits. This has a very close connection with the work's lack of structural unity. Since the suggestion of internal traits of characters is poor and the social traits are not motivated well enough to the development of actions and events, the causal development of events integrated with the emotional and ideological

conflict does not happen. (key words : character, characteristic, trait, characteristic element, characterization, internal characteristic, social characteristic, functional characteristic, internality, sociality)

▮ 위 논문은 2009년 11월 01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21일 게재가 확정되었음.